

불자 세상보기



송석구 삼성공정재단 이사장

“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합창. 2015년 8월 15일 KBS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축제를 여는데, 그 주제가 ‘나는 대한민국’이다. 가슴 뭉클한 구호다. 마치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듯 외치는 그 소리를 들노라면 힘과 충만감이 솟는다. “나는 대한민국”은 곧 ‘대한민국은 나’이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이 말을 불교 화엄의 ‘일즉일체(一切即一切)’로 풀어본다. 만유의 하나 하나 실체는 차별적 존재 같지만 모두 절대적 이면서도 만유와 서로 융통한다. 마치 한방울의 비단물에서 큰 비단물의 짙맛을 알 수 있듯이. 국민대합창은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전국 곳곳의 지역 합창단이 함께한다. 해방둥이들로 구성된 ‘1945년 합창단’은 가수 이선희의 지휘아래 연습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얼골인 70 노인들이 사뭇 열정적이다. 여야 국회의원과도 노랑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아침 합창단’을 꾸렸다. 노년 미 넘치고 익살스러운 가수 조영남이 지

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이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높고 낮은 음이 듣기 좋게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가고 있다. 전국의 지역 합창단들도 국민대합창 축제 참가를 위해 땀 흘리며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노라면 감동과 환희가 일렁인다. 가슴이 저려온다. 저토록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도 순수한 우리민족이 어찌다 36년간 그 수난을 겪어야 했는가. 국민대합창이 서울에서 올려 퍼질때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이 될 것이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어울리는 국민대합창의 ‘화음’, 그것은 화합이고 소통이고 결집이고 통합이다. 2015년 8월 15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도덕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다. 우리사회의 비리나 부조리가 광복 70년 8월 15일 이전과 달라 바 없다면 국민대합창은 무의미해진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떼떽하게 외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하는일, 직업이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해야할 공업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다. 광복 70년 8월 15일, 우리국민은 통일 의 ‘그날’을 위해 결단하여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외침을 극복하거나 통일이 완성될 때는 언제나 국민의 절제있는 단결과 철저한 애국심의 총질 정신, 신의와 도의가 중심이 되었다. 우리의 우리는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조선의 멸망과 일제 36년의 능욕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반면교의 교훈이다. 임진왜란을 다룬 드라마 <징비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류성룡은 혼자 길을 걸으며 이렇게 독백한다. “훗날 이 길을 걷는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길을 무심히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까.” <징비록>의 징비는 <시경>에서 유래된 말로 과거를 징계하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는 법이다. 한반도의 한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족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로 5천년을 굳세게 이어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통치와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적으로 두개의 한국이 되고 말았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민족으로 두개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인류에도 함께 해야할 공업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다. 광복 70년 8월 15일, 우리국민은 통일 의 ‘그날’을 위해 결단하여 일어나야

내부가 굳건해야 한다.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복해를 극복할 수 있는 국방력과 경제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내부가 공고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남·남갈등은 통일대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 원래 외부 갈등보다 내부 갈등이 더 위험하고 해결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거나 위태로워진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위해 자강(自強)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강은 국민적 구심사상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곧 전통윤리의 재발견이다. 한민족에게는 홍익인간의 기본 정신이 있다. 넓게 백성을 이익되게 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교육으로 지향해야 한다. 통일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분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곧 분단의 고착화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증진, 그것은 국민적 교육공업이다.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이 바로 진정한 한반도 광복의 날이 될 것이다.

社說

불교 근대화재 지정 관심가져야

지난 7월 24일 용성 스님이 선농일지의 불교운동을 펼쳤던 ‘화과원(華果院)’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창립 총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성 스님의 상해임시정부 자금지원시설인 함양 백운산 ‘화과원’의 국가사적 추진을 선포했다. 함양군에서 발간한 <함양문화대전>에는 건물 16동에 스님 수십명이 기거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용성 스님이 거주했던 곳에 전각 1채만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화과원의 경우도 다른 독립운동 관련 근대화재 현황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화재 등록 건수는 648건. 이중 불교관련 근대화재는 총 30건으로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 (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630호) 등 8개 정도다. 범위를 넓혀도 11건에 불과

하다. 이중 용성 스님 관련 유물이 50%를 넘는다. 문도들이 현재 불교계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용성문도회와 선양사업을 진행 중인 경계·만공 선양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문도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곳은 보존관리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 만당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군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의 경우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국가공공자 서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료 수집 발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불교 근대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근대 불교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근대화재와 인물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고취되길 기대해본다.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화 막아야 한다

서산·당진 불교계가 요즈음 뿔이 단단히 났다. 교황 방문 1주년을 맞아 해미읍성 일대에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너무 한다는 생각에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이 7월 20일 가톨릭 대전교구 유홍식 교구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자신의 종교 역사 부각을 위해 다른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였다. 허정 스님은 편지를 통해 성지화 작업이란 명목으로 땅에 새겨진 타종교 흔적에 천주교 순교지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역사 만들기’가 ‘남의 역사 지우기’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지킨 역사 현장이다. 해미읍성 역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해미읍성은 가톨릭 박해 현장이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유교 흔적도 많다.

또한 읍성 동서남북에는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裨補)로 세워져 있다.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의 흔적이 중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곳이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꾸며져야 한다. 불교 사찰이 가톨릭 성지화 범하는 경우는 수차례 있었다.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여사가 대표적 사례다. 천진암은 이제 가톨릭 발상 관련 사적지로, 주여사는 가톨릭 강화처로 변신하고 있다. 주여사의 경우 유증사 신도회가 나서서 성지화를 저지 중이다. 이 같은 가톨릭 성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종단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근현대 사지 연구 조직을 만들어 발굴해내는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발언대

불교 역사 지우고 가톨릭 성지화라니...



허정 스님 서산 천장사 주지

지난해 교황 방문 이후 서산시는 그 후속작업을 위해 198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사업예산을 문광부에 신청해놓고 국회의 승낙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계획에는 주변 논 6000평을 매입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도 있으며, 옛 해미초등학교에 교황기념관을 짓는 계획도 있다. 가톨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자가 성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순교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고 성지로 불리우고 있다. 국토의 ‘성지화’ 작업은 1600년 역사를 가진 불교 및 여타 종교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광주 천진암은 가톨릭 성지로 바뀐지 오래며 동학

창시자인 최제우가 처형된 대구 관덕정의 가톨릭 성지 ‘관덕정 순교기념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국가톨릭의 성지화 작업은 땅에 새겨진 타종교의 흔적에 가톨릭의 순교사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 가톨릭의 ‘나의 역사 만들기’가 결과적으로는 ‘남의 역사 지우기’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은 마을과 이웃한 평지에 축조되어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미읍성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종교 안에서의 일이라고 변명한다해도 가톨릭이 걸로 웃는 모습으로 이웃 종교와의 소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종교의 사찰을 빼앗고 다른 전통의 역사와 문화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톨릭인의 선량한 웃음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고 불상을 훼손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첫째 해미읍성은 공동체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광장이다. 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왜구를 지키는 역사의 현장이며 연등축제, 연날리기, 활쏘기와 같은 민속놀이와 민속공예가 펼쳐지는 체험의 현장이다. 둘째 해미읍성은 종교화합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미읍성 동서남북에는 해미읍성과 같은 역사를 가진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裨補)로 세워져 있다. 해미읍성이 도선(道詵)국사가 불교의 밀교(密敎)를 바탕으로 체계화한 비보풍수(裨補風水)의 원리에 의해서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동쪽 산수리 미륵은 30년전 잃어버렸는데 금년에 호암미술관 정원에 있다는 제보가 있어 마을 주민들과 불교계는 산수리 미륵을 찾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해미읍성은 유교의 흔적도 많다. 이렇게 불교와 가톨릭과 유교의 흔적이 중첩되는 해미읍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만나게 되는 소통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2000년 ‘쇄신과 화해’라는 참회의식에서 다른 종교가 지닌 정신 문화적 가치와 사회 윤리적 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도 고백한 바 있다. 이 고백이 국민과 타종교인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어야 한다. 불교도 불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제가 제안한 해미읍성의 이용방향은 우리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관점에서 드린 말씀이고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서 올린 글이다. 잘 살펴보고도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이 글은 허정 스님이 가톨릭 대전교구 유홍식 교구장에게 보낸 편지글을 일부 발췌 정리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현사
• 주 지 : 보현 (최완옥)
• 주 소 : 서울 관악구 대학동 251-47호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찰료가 있습니다.

심전 정병문 교수의 통변완결
핵심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가오는 우리네 인생의 길흉화복에 각자의 이정표를 짚어가며 운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학원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핵심 위주의 사주해법으로 명쾌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실천 및 통변 강의입니다.
- 사주명리 공부를 하였으나 통변에 자신이 없는 분
-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부부족하신 분
- 철학관, 사주카페 개업을 준비 중이신 분
■ 강 사 : 심전 정병문 교수 (010-4714-6767)
■ 개 강 : 2015년 9월 2일 수요일 2시 개강 (주 1회 3시간 교육)
■ 수강료 : 2015년도 2학기 등록금 30만원 (한학기 분)
■ 특 전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칙에 의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장학금 지급(등록금 할인 혜택 부여)
\*1주 1강 3시간이며 『핵심사주 명리학』 저자 심전 정병문 직강입니다.
제1강 생극제화의 원리 제2강 함총형파해
제3,4강 용신과 격국 제5,6,7,8강 간지 체성
제9,10,11,12,13,14,15,16강 육친 통변 완결
\*무료공개강의 2015년 8월 27일(목) 2시 ~ 5시
(본관302호강의실-공개강의 수강후 등록하시는 분 모두에게 저서 『핵심사주 명리학』(상행사 간 30,000원) 1권씩 무료증정
\*수강신청 및 문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8길 60 (성북동) TEL 02)3668-9890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버 스 : 1111,2112번으로 환승 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하차
정류장 바로 앞 동방아구찜과 손칼국수 사이 골목으로 200M 정도 도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 재 공 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재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 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호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제,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김성만 / 특허번호: 제10-1467668
상담전화: 054)331-9303, 010-8458-3310
www.화분장.kr